



청송심씨 심벌마크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장 심갑보
편집인 : 문화이사 심갑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전화 : (02) 2267-7857
(02) 2267-9339
F A X : (02) 2269-7755
인쇄 : 대신인쇄
070-7779-3019

新年辭



沈甲輔
대종회 회장

새해에도 29만 청송심문 일가 여러분의 건강과 가내(家內)에 늘 평안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날 우리 대종회는 전국 종인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많은 업적을 이루고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문중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갖추고 탄탄한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지혜와 재주를 겸비한 영리한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지난해에 못다 한 숙원사업을 잘 마무리 하고, 송조돈목(崇祖敦睦)과 종재관리(宗財管理)에 힘써 앞으로도 대종회가 더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4세조 청성백·정안공 할아버님의 재각건립(齋閣建立)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세조 청성백 할아버님은 7형제분을 두시어 오늘날 심문을 번창(繁昌)하게 하셨으며, 3대에 걸쳐 정승(政丞)에 오르시고 소헌왕후(昭憲王后)를 손녀로 두시어 명실공히 심씨의 위상을 삼한갑족(三韓甲族)의 반열에 오르시게 하신 청송심씨 문중의 자랑스럽고 훌륭한 선조님이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성백 할아버님의 재각이 마련되지 않아 눈비가 오는 날이면 제수(祭需)마련과 참례(參禮)에 지장이 많아 제대로 제향(祭享)을 모시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어찌 심문을 빛내시고 융성·번창시키신 선조님에 대한 후손된 도리를 다하였다 하겠습니까?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제가 대종회 회장으로 취임한 2014년도 정기총회 석상에서 청성백 선조님의 재각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한 바와 같이 2014년 11월 재각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 10월에 재각건립을 위한 기초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재각건립을 위해 총 1억 여 원의 성금을 보내주신 지파종회와 종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0 여 억 원의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재각건립 기금이 조속히 마련되어 가능한 금년 내에 재각건립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일가 여러분의 십시일반(十匙一飯)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장학사업(獎學事業)을 활성화하여 심문의 인재양성(人才養成)에 힘쓰겠습니다.

장학사업은 올해 4번째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향학열(向學熱)을 더욱 고취시켜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종회의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장학사업이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장학금을 기탁(寄託)하여 주시는 지파종회와 종인들이 계시고, 매월 자동이체나 익명 등으로 기탁해 주시는 독지가 여러분의 정성어린 성원이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후예(後裔)를 아끼고 사랑하는 독지가 여러분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앞으로도 장학사업이 꾸준히 이어 질 수 있도록 대종회의 운용자금을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여 장학기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후학(後學)을 인재로 육성·발전시켜 우리 종중을 빛내고, 나아가 국가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송조돈목(崇祖敦睦)의 정신함양과 종재관리(宗財管理) 및 위선사(爲先事)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뿌리교육과 종회탐방(宗會探訪) 등을 통하여 일가간의 화합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선조의 훌륭한 발자취와 전통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조상의 빛나는 얼과 송조돈목(崇祖敦睦)의 미덕(美德)을 가르쳐 훌륭한 가문의 후예로서의 자긍심(自矜心)을 가지고 가문의 빛나는 전통을 후손 대대로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여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안성 3세조 위토관련 송사(訟事)가 유종의 미(美)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유사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종재관리(宗財管理)와 5처 묘소 및 2단소 수호관리(守護管理)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국의 친애하는 심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숙원사업(宿願事業)은 몇몇 임원이나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전국 일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삼한갑족(三韓甲族) 명문가의 후예로서 정성을 다해 조상을 모시고, 일가간 화목과 단합을 이루어 송조돈목(崇祖敦睦)의 정신에 빛나는 청송심문의 전통을 후손만대(後孫萬代)에 영원히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합시다.

지난해 일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丙申 元朝
青松沈氏大宗會 會長 沈 甲 輔

일가여러분 丙申年 새해에도 家內 萬福이 가득하시고 萬事亨通 하시기를 祝願합니다!

고 문 : 宜斗 魚澤 相泳 相殷 相郁 晶求 榮燮
龍俊 載鴻 載榮 宇永 大平 漢俊 勳鍾
명예회장 : 宜洛
회 장 : 甲輔
부 회 장 : 宜七 相錄 相植 相國 相均 明玉 贊求
一用 敏燮 載冕
감 사 : 相烈 周燮 賢輔
집 행 부 : 相和(상임 부회장) 彥泰(총무이사)
載緒(재무이사) 甲澤(문화이사)
유 사 : 相哲(청송) 弘燮(청송) 遠燮(청송)
正秀(함열) 哲裕(안성) 洪燮(연천)
載龍(청주) 相國(철원)
이 사 (가나다순)
서 울 : 光輔 光燮(은평) 光燮(강남) 百燮 奉燮
三圭 相慶 相晚 相默 相瑞 相祚 相學
相翰 錫希 星求 成輔 映求 英輔 玉仁

完圭 勇鎭 佑燮 思龍 思夏 雄燮 旽燮
元植 殷植 應錫 宜杓 寅燮 載求 載金
載德 載奉 在臣 載洪 正燮 種福 朱燮
俊輔 昌輔 春輔 春植 忠澤 泰燮 亨求 勳輔
경 기 : 康燮 光輔 揆一 德燮 明燮 文錫 相大
相烈 相英 相雨 上殷 相贊 相許 相弘
相勳 瑞玲 錫鎔 聖輔 洵燮 洋燮(과천)
良燮(김포) 良燮(연천) 彥村 榮燮 泳秀
完輔 禹植 元輔(과천) 元輔(김포) 胤燮
應夏 載根 載萬 載文 載聖 載烈 載玉
載浩 載勳 鍾洪 振裕 昌輔 炯燮 興周
부 산 : 萬仁 成燮 宜景 載德 載榮
대 전 : 揆善 揆燮 宜哲 逸燮 玄根
인 천 : 江水 慶燮 揆成 大植 相圭 相直 相振 錫文
應茂 彝燮 載錫 載善 在安 駿求 炯茂
대 구 : 成澤 相燮 賢錫 護雄 紅燮 勳
광 주 : 觀燮 揆大 思慶 在均在 益 鍾德 駿燮 鎮植

울 산 : 隆求 英求 應輔 守輔
강 원 : 東燮 東出 萬澤 茂植 相珉 相昭 相夏
成起 思弘 載求 在澤 載鉉 正輔 春燮
경 남 : 揆實 吉燮 東燮 茂燮 在模 載判 載華 點輔
경 북 : 能光 相國 相東 相完 相禧 秀彥 琬寧
宜石 載根 載德 在叔 載玉 載浩 載洪 花鮮
전 남 : 棋官 棋柏 相佑 貞燮 正植 太守 行燮
전 북 : 斗燮 相根 尙道 相哲 秀永 秀一 載根
載政 載學 鍾根 鍾默 周燮
충 남 : 甲澤 永鍾 雲澤 允澤 載台 載重 仲根
仲燮 泓植 洪澤
충 북 : 明彥 相鶴 相昊 成來 仁輔 載德 載武
載福 載榮 載純 中來 興燮
해 외 : 相昱 (캐나다)

2016년 1월 1일
- 대종회 임원 일동 -

특진보국송록대부청성백심공행장 (번역문)

(特進輔國崇祿大夫靑城伯沈公行狀)

공의 휘는 덕부(德符)요 자는 득지(得之)이며, 세가(世家:王族名族에 대한 기록)는 경상도 청부현(靑阜縣)에서 문림랑위위승(文林郎衛尉丞) 홍부(洪孚)가 함문지후(閤門紙候) 연(淵)을 낳았고, 연이 이조정랑 용(龍)을 낳았으니 공은 그의 아들이다.

나이 17세 되던 해 충목왕원년 갑신에 문음(門蔭)으로 좌우위녹사참군(左右衛錄事參軍)에 제수(除授)되었고, 공민왕 8년 무술에 중랑장 겸 함문(中郎將兼閤門)에 승진되어 부사(副使)에 등용되었다.

임인에 봉선대부함문부사(奉善大夫閤門副使)에 올랐고, 계묘에 봉상대부전공총랑(奉常大夫典工總郎)으로 옮겼다가 이 해에 중현대부소부윤(中顯大夫少府尹)에 임명되었다.

갑진에 수원부사(水原府使)를 원하여 나가니 암행어사가 고을에 와서 공이 들어가 보니, 어사가 그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잠방이 같은 옷을 입지 않았으므로 바로 물러나왔다. 그러자 어사가 아전에게 명하여 그를 꾸짖으니 옷이 의식(儀式)에 맞지 아니하여 그랬다고 대답하자 어사가 사과하였으니, 그 감직하고 아첨하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병오년에 강화부윤이 되니 이 고을은 원래 궁벽하고 미개하여 일찍이 학문을 가르치지 못하였다.

공이 부임하여 서당(書堂)을 크게 개설하고 스승을 맞아들여 고을의 자제(子弟)를 모아 시서(詩書)와 예의(禮義)를 가르쳐 울연(蔚然)히 문옹(文翁: 한나라舒의 사람 어려서부터 好學하여 春秋에 精通하였다. 景帝末에 蜀의 郡守가 되어 백성을 教化시켰다.)의 郡守가 되어 백성을 教化시켰다.)

이 촉나라를 교화시킨 풍도(風度)가 있었다. 신해에 통헌(通憲)으로 충주목사에 나아가 아전을 잘 다스리고 백성에게 너그럽게 하니 치적(治績)이 제일이었다. 조금 있다가 어머니의 상을 당해 도보(徒步)로 안성까지 와서 너무 슬퍼해 거의 실성(失性)할 지경에 이르렀다.

계축에 복을 벗고 정순대부관위위시사(正順大夫判衛尉寺事)에 임명되었다. 신우(辛偶) 2년 을묘에 우상시(右常侍)에 올랐다.

공은 지략(智略)이 많았고, 재주는 장수(將帥)가 될 만하여 봉익대부예의관서(奉翊大夫禮儀判書)에 승진되었고, 강계도만호(江界都萬戶)로 보충(補充)되니 시정(施政)에 큰 계략(計略)을 써서 명성을 더욱 날리니 조정에서 봉익대부밀직부사 의주부원수(義州副元帥)로 발탁하였다.

병진에 밀직부사 상호군으로 임명되었고, 얼마 뒤에 나라에서 불러 정사에 동지밀직부사 상호군에 임명되었고, 이 해에 서해도부원수(西海道副元帥) 겸 도순문사(都巡問使)가 되었으며, 무오에 밀직사사가 되니 신우의 조정에서 추성협찬공신(樞誠協贊功臣)에 책록(策錄)하였고, 조금 있다가 밀직사사 상호군으로 옮겼다.

10월에 사명(使命)을 받들고 중국의 연경(燕京)에 갔을 때에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가 여러 번 안부를 손내시(孫內侍)에게 묻고 심부름꾼을 보내지 않은 것은 공이 굳이 사양하였기 때문이었다.

공은 명을 받음이 어렵지 않고, 꺾하(闕下)에 이르러 묻는 즉시 재치있게 대답하니 공이 연경에 있을 때 광정대부(匡靖大夫) 밀직사사에 임명되었고, 귀국하여 지문하사(知門下事) 상호군에 임명되었다가 이 해에 지문하사 상의회의도감사(商議會議都監事)를 배수(拜受)하였다. 경신에 왜적(倭賊)이 전함(戰艦) 천소(千艘)로 우리나라의 남쪽 변방을 침략하여 지나는 곳마다 싹 쓸어 남는 것이 없었으나, 여러 장수가 막지 못하여 용안진포(龍安鎭浦)로 공격하여 들어오니 그 형세가 너무 컸다.

신우가 공에게 명하여 높고 큰 배 40을 가지고 가서 토벌하니, 적은 배를 서로 붙들어 매어 진(陣)을 치고 창과 화살촉 부딪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공이 지략(智略)으로 두려운 빛 없이 일거(一擧)에 모두 섬멸하니, 이로부터 왜적이 다시는 함부로 날뛰지 못하였다.

임술에 서북면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 겸 평양윤(平壤尹)이 되어 성 바깥 둘레의 휴담을 완전히 고쳐 쌓고, 일이 끝나자 갑자에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가 되었다가 돌아와서 을축에 문화참찬(門下參贊)에 승진되었다.

동북면에 왜적이 침범하여 들어오자 공이 절월(節鉞: 조선시대 관찰사 유수 등이 부임할 때 왕이 내주던 수기(手旗)와 도끼같이 만든 것으로 생살권을 상징함)을 받고 토벌하였으며, 문화찬성사로서 연경에 갔다가 병인에 돌아와서 청성부원군에 봉하여졌고,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回軍)할 때 우리 태조가 파사부(婆娑付: 遠東都督擘使司)에 있는 府의 이름에서 창의(唱義)하여 군사를 돌리는데 공을 협찬하고 도운 공이 많았다.

공양왕 원년 기사에 문화화시중 경기좌우도 도통사가 되었고, 이미 재상(宰相)에 올라 항상 여러 아들들에게 경계해 말하기를 “내가 조석으로 공무에 있으면서 글을 써서 묻고 물건으로 돕는 것은 너희들에게 벼슬이 내리더라도 받지 말라는 것이다”하고, 그 손과 발의 살결이 트고 동상(凍傷) 입은 것을 보이며 경계해 말하기를 내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수고로움이 이와 같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벼슬을 하려고 하느냐 했다.

경오년에 뜬소문으로 토산현(兔山縣)에 귀양 갔다가 일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얼마 안 되어 풀려나와 신미에 좌시중이 되어 공양왕의 아들 석(奭)을 따라 연경에 다녀왔다.

임신년 우리 태조가 등극하자 회군할 때의 공훈이 여러 장수중에 제일이어서 추상(追賞)을 받고 판문하(判門下)에 임명되고, 청성백에

추봉(追封)되었다.

갑술에 송도(松都: 개성)에 성을 쌓는데 공사를 감독하였고, 이 해에 한양에 새 도읍을 만드는데 공에게 명하여 그 일을 다 다스리게 하니, 이에 공사의 공정(工程)과 기한을 헤아려 의(義)로서 알아듣게 타이르고, 너그럽게 일을 시키니 백성이 괴로워하지 아니하였다.

정축에 판문하에 임명되고, 무인에 영삼사(領三司)가 되었으며, 기묘에 좌정승이 되었고, 경진에 병으로 사직하니 다시 청성백에 봉하고 일품록(一品祿)을 받았다.

신사정월 모갑(某甲)에 집에서 졸하니 향년 74세요, 부음(訃音)이 들리자 태종이 조회(朝會)를 사흘 동안 폐지하고, 사신(使臣)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며 부조를 하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마전현(麻田縣)에 예장(禮葬)하니 시호는 정안(定安)이다.

공은 품성(稟性)이 인서염정(仁恕恬靜: 인자하고 관대하며 편안하고 고요함)하며, 기쁜 것과 심내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고, 거처함에 공손하며 첩부(妾婦)가 없고 재산 늘리는 데는 힘쓰지 않으며 가집과 줌을 의리로 했으니, 장수와 정승을 20년 동안 했으나 창고에는 남은 재산과 곡식이 없고, 임종에 겨우 상제(喪祭)에 쓰는 것만 있었다.

벼슬에 있어서는 일에 감직하여 조금도 사사롭고 아첨함이 없었고, 적을 공격함에 그 과수를 잡았어도 일찍이 망령되어 죽이지 않으며, 그 한가할 때는 책을 대하여 조용하니 문인(文人)과 이담한 선비 같았다.

초취(初娶)는 청원군(淸原君) 송유충(宋有忠)의 여(女)로 공보다 먼저 돌아갔고 3남을 낳았으니, 인봉(仁鳳), 의구(義龜), 도생(道生)인데 도생은 불교를 배워 중이 되었다.

후취(後娶)는 감문위랑장(監門衛郎將) 인천 문필대(仁川門必大)의 여로 아들 넷을 낳았으니, 징(澄), 온(溫), 종(宗), 정(正)이다.

온은 병인년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종은 태조의 제 2녀 경선공주(慶善公主)에게 장가들었다. 전하(殿下)가 임금이 되기 전에 태종이 온의 제 1녀를 배위로 골라서 즉위(即位)하자 공비(恭妃)로 삼으니 이것이 그 시종(始終)의 슬픈 일과 영화로운 일의 대략이다.

지금 사관(史官)이 실록(實錄)을 편수(編修)하는데 심씨의 모든 아들이 어림으로 내가 그 집에서 공의 행장으로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모으니, 공의 임종(臨終)에 반드시 글로써 세상에 알려질 만한 것이 있었을 터인데, 그 행적(行蹟)을 지은 것이 집안의 화난(禍難)을 만나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석덕이 공의 높고, 위대한 공렬(功烈)이 잠차 없어서 전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본래 들어서 아는 것을 주워 모아 만분의 일이라도 지어서 올린다.

조봉대부한성소윤 강석덕(姜碩德)이 지음

덕장(德將)으로 명성(名聲)이 높은 청성백(靑城伯)

고려 말엽에 재물(財物)을 약탈해가기 위해 왜구(倭寇)들이 각지(各地)에 여러 차례 걸쳐 침공(侵攻)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명의 무장(武將)들이 이를 격퇴하기 위해 방어 작전을 연달아 전개했다.

우리나라 무장(武將)중에서 이성계(李成桂)는

복장(福將)이라 불리 우고 이지란(李之蘭)은 맹장(猛將)이라 불리었는데 우리 청성백(靑城伯)할 아버지는 덕장(德將)이라고 불리었다고 전(傳)해 오고 있다.

그것은 청성백(靑城伯)께서는 언제나 부하장병들을 아끼고 덕을 베풀기에 조금도 인색하지 않

았다고 하며 또한 침략군(侵略軍)을 생포(生捕)하더라도 반항하는 지휘관만 죽였을 뿐 순종(順從)하거나 하졸(下卒)인 경우에는 살상(殺傷)을 하지 않는 등 그야말로 오르지 적덕(積德)으로 일관(一貫)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어 덕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우리 조상의 제사상에 조율이시(棗栗梨柿)에 담겨진 심오한 의미

1. 대추(棗)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대추, 밤, 배, 감에는 아래와 같은 심오한 뜻이 있다.

대추는 통 씨여서 절개를 뜻하고, 순수한 혈통과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이다.

대추는 붉은색으로 임금님의 용포를 상징하고, 씨가 하나인데 열매에 비해 그 씨가 큰 것이 특징이므로 왕을 뜻한다.

왕이나 성현이 될 후손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의미와 죽은 혼백을 왕처럼 귀히 모신다는 자손들의 정성을 담고 있다.

2. 밤(栗)

밤나무는 땅 속에 밤톨이 씨방생밤인 채로 달려 있다가 밤의 열매가 열리고 난 후에 씨밤이 썩는다. 그래서 밤은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것과, 자기와 조상의 영원한 연결을 상징한다.

이런 이유로 밤나무로 된 위패를 모신다.

유아가 성장할수록 부모는 밤의 가지처럼 차츰 익세었다가 "이제는 품안에서 나가 살아라"하며 밤송이처럼 썩 버려주어 독립된 생활을 시킨다는 것이다.

밤은 한 송이에 씨알이 세 톨이니 3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의미한다.

3. 배(梨)

배는 껍질이 누렇기 때문에 황인종을 뜻하고, 오행에서 황색은 우주의 중심을 나타낸다. 흙의 성분(土)인 것이다.

이것은 바로 민족의 긍지를 나타낸다. 배의 속살이

하얀 것으로 우리의 백의민족에 빗대어 순수함과 밝음을 나타내 제물로 쓰인다.

배는 씨가 6개여서 육조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관서를 의미한다.

4. 감(柿)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것이 천지의 이치인데 감만은 그렇지 않다. 감의 씨앗을 심으면 감나무가 나지 않고 대신 고욤나무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3~5년쯤 지났을 때 기존의 감나무를 잘라서 이 고욤나무에 접을 붙여야 그 다음 해부터 감이 열린다. 감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워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데는 생가지를 칼로 찢어 접붙일 때처럼 아픔이 따른다. 그 아픔을 겪으며 선인의 예지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의 인격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나무는 아무리 커도 열매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나무를 꺾어 보면 속에 검은 신이 없고, 감이 열린 나무는 검은 신이 있다. 이것을 두고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그 만큼 속이 상하였다 하여 부모를 생각하여 놓는다고 한다.

감은 씨가 8개여서 8방백 (8도 관찰사, 8도 감사)를 뜻한다. 8도 관찰사가 후손에 나오라는 의미이다.

이상과 같이 제사상의 주된 과일로 대추, 밤, 배, 감이 오르는 것은 이들이 상서로움, 희망, 위엄, 벼슬을 나타내는 전통적 과일이기 때문이다.



살의유려

現月新火

좋은 집안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경대 앞에 이런 글을 써서 붙여놓았다.

배운 게 많은 시어머니는 깊은 뜻이 들어 있을 것이 분명한 이 글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現月新火+中+五高
“달이 나타나면 불이 새로 번지고...”

아주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해석을 하는데 외출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의외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현대백화점은 月요일에, 신세계는 火요일에 논다. 中학교 동창회는 10일에, 高교 동창회는 15일에 있다”

-대중회 관리부장-



스스로 행복한 사람

현대인의 불행은 모자람이 아니라 오히려 넘침에 있다. 모자람이 채워지면 고마움과 만족함을 알지만 넘침에는 고마움과 만족이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잃어 가기 때문이다. 따뜻한 가슴을 잃지 않으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등 살아있는 생물과도 교감할 줄 알아야 한다.

석창포와 자금우 화분을 햇볕을 따라 옮겨 주고 물뿌리개로 물을 뿌려 주면서 그 잎과 열매에 눈길을 주고 있으면 내 가슴이 따뜻해진다.

한밤중 이따금 기침을 하면서 깨어난다. 창문에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을 보고 창문을 열었을 때 달도 희고 눈도 희고 온 천지가 흰 것을 보면 내 가슴 또한 따뜻해진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도 없다.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살아 있을 때 다른 존재들과 따뜻한 가슴을 나누어야 한다.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은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고 찾는 것이다.

행복은 이웃과 함께 누려야 하고 불행은 닫고 일어서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행복해야 한다.

법정스님의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중에서
제공: 상은 증보편집위원회 고문

대중회 전국 종인들과의 대화 노력

대중회는 전국의 소중회와 종인들과의 폭넓은 소통을 위하여 2012년부터 중회탐방과 종인탐방을 실시하고, 종보(宗報)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국적으로 많은 호응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중회의 활동상을 널리 알리고자 희망하는 중회와 주변에 모범종인을 추천해주시면, 대중회는 전국 어느 곳이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탐방중회와 종인소개를 집계해 공지하오니 앞으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대중회 -

■ 종인탐방 내역

| 순번 | 년 월 일 | 대 상 | 종 인 | 탐 방 원 | 지 역 | 순번 | 년 월 일 | 대 상 | 종 인 | 탐 방 원 | 지 역 |
|----|------------|-----------------|-----|------------------|-----|----|------------|-----------------------------|-----|--------------------|-----|
| 1 | 2012.10.18 | 대중회 고문 | 어 택 | 응섭편집위원 재서문화이사 | 서울 | 10 | 2014.7.20 | 대중손 | 재 현 | 광섭문화이사 재서재무이사 | 원주 |
| 2 | 2013.1.11 | 대중회편집위원 (화백) | 민 섭 | 재욱편집위원 재서문화이사 | 홍천 | 11 | 2014.11.13 | 고문(전 충남도지사/ 현 지방자치발전위원장) | 대 평 | 재서재무이사 | 서울 |
| 3 | 2013.3.5 | 고문 (전 총무처장관) | 우 영 | 상렬편집위원 재서문화이사 | 서울 | 12 | 2015.1.12 | 공숙공중중회장 | 응 섭 | 재서재무이사 | 파주 |
| 4 | 2013.7.10 | 악은공중손 | 영 섭 | 남규편집위원 재서문화이사 | 청송 | 13 | 2015.3.14 | 심훈선생중손 | 천 보 | 광섭문화이사 언태총무이사 | 당진 |
| 5 | 2013.9.11 | 청송중유사 | 능 광 | 재서문화이사 | 청송 | 14 | 2015.4.1 | 대중회고문 | 재 영 | 광섭문화이사 재서재무이사 | 대전 |
| 6 | 2013.11.11 | 연고항존자 | 능 윤 | 재서문화이사 광섭이사 | 태안 | 15 | 2015.7.14 | 대중회이사 진주향교 전교 | 동 섭 | 광섭문화이사 재서재무이사 | 진주 |
| 7 | 2014.1.14 | 대중회감사 | 재 면 | 상렬편집위원 재서문화이사 | 인천 | 16 | 2015.9.21 | 보길도새마을지도 협의회회장 | 강 채 | 갑택문화이사대행 재서재무이사 | 보길도 |
| 8 | 2014.3.1 | 대중회부회장 | 갑 보 | 상렬편집위원 재서문화이사 | 서울 | 17 | 2015.11.20 | 고문(전 경기도지사) | 재 흥 | 재석편집위원 갑택문화이사대행 | 분당 |
| 9 | 2014.4.30 | 안동중회장 | 재 덕 | 남규편집위원 재서문화이사 | 안동 | 18 | 2016.1.15 | 청송보광사주지 | 무 구 | 동섭편집위원 갑택문화이사 | 청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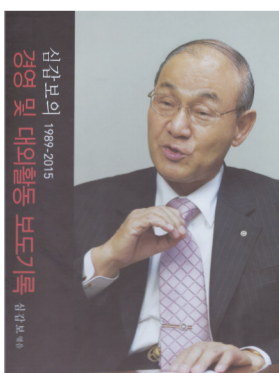
■ 중회탐방 내역

| 순번 | 년 월 일 | 대 상 | 회 장 | 탐 방 원 | 지 역 | 순번 | 년 월 일 | 대 상 | 회 장 | 탐 방 원 | 지 역 |
|----|------------|----------|-----|------------------|-----|----|------------|------------|-----|------------------------------|-----|
| 1 | 2012.1.17 | 안효공과중회 | 상 덕 | 백강편집위원 재서문화이사 | 수원 | 14 | 2014.3.8 | 관사공과단성북곡중회 | 동 섭 | 동섭편집위원 재서문화이사 | 산청 |
| 2 | 2012.3.16 | 도총제공과중회 | 민 섭 | 상렬편집위원 재서문화이사 | 원주 | 15 | 2014.5.15 | 운양공과중회 | 재 봉 | 광섭편집위원 재서문화이사 | 창원 |
| 3 | 2012.4.14 | 악은공중회 | 의 칠 | 재서문화이사 | 청송 | 16 | 2014.7.14 | 5세조관사공과중회 | 상 우 | 광섭문화이사 재서재무이사 | 보성 |
| 4 | 2012.7.30 | 지성주사공과중회 | 상 록 | 재서문화이사 | 장성 | 17 | 2014.9.13 | 선무공신과중회 | 재 호 | 광섭문화이사 | 포천 |
| 5 | 2012.9.16 | 안동중회 | 재 덕 | 남규편집위원 재서문화이사 | 안동 | 18 | 2014.11.12 | 당진중회 | 영 택 | 광섭문화이사 재서재무이사 | 당진 |
| 6 | 2012.11.30 | 대구중회 | 홍 섭 | 재서문화이사 | 대구 | 19 | 2014.12.19 | 봉익대부공과철원중회 | 상 하 | 광섭문화이사 | 철원 |
| 7 | 2013.1.11 | 현령공중회 | 성 보 | 재서문화이사 | 안동 | 20 | 2015.3.7 | 풍덕공과여산공중회 | 정 보 | 광섭문화이사 재서재무이사 | 충주 |
| 8 | 2013.2.21 | 공숙공중중 | 응 섭 | 재서문화이사 | 파주 | 21 | 2015.5.3 | 가곡당중회 | 한 섭 | 언태총무이사 봉섭이사 | 함안 |
| 9 | 2013.5.9 | 정이공과중회 | 석 용 | 재서문화이사 | 안성 | 22 | 2015.7.4 | 좌승지공과임피중회 | 상 용 | 갑택문화이사대행 재서재무이사 | 군산 |
| 10 | 2013.7.19 | 부사공과중회 | 영 섭 | 상화부회장 재서문화이사 | 의왕 | 23 | 2015.9.17 | 부산청송회 | 재 영 | 갑택문화이사대행 재서재무이사 | 부산 |
| 11 | 2013.9.5 | 신천공과중회 | 상 소 | 성기편집위원 재서문화이사 | 춘천 | 24 | 2015.10.25 | 안성중회 | 일 용 | 갑택문화이사대행 재서재무이사 | 안성 |
| 12 | 2013.11.4 | 만취당공과중회 | 운 택 | 광섭편집위원 재서문화이사 | 태안 | 25 | 2015.12.18 | 진사공중회 | 중 근 | 갑택문화이사대행 언태총무이사 규선편집위원 | 천안 |
| 13 | 2014.1.17 | 수운관공과중회 | 규 실 | 재서문화이사 수영총무이사 | 마산 | | | | | | |



심갑보의 경영 및 대외활동 보도기록 발간

심갑보의 경영 및 대외활동 보도 기록은 삼익THK에 45년간 봉직하는 동안 1989년-2015년까지 26년간에 걸친 경영활동과 대외활동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편찬한 엮음집입니다. 제자식들과 가족, 친척 및 회사 임직원들에게만 드릴 목적으로 한정판 제작했습니다.



심갑보 대중회 회장

경의재 사용에 관한 협약 체결식

지난 10월 20일 경의재 사용에 대한 대중회와 청송군 간 협약체결식이 청송군청 소회의실에서 대중회 상화 상임부회장, 재서 재무이사, 언태 총무이사, 갑택 문화이사대행, 악은공중회 영섭중손, 재흥 청송찬경회관관장,

원섭 청송유사, 그리고 청송군청의 이태식 부군수, 이경국 기획감사실장, 김종현 총무과장, 심남규 문화사업담당 등이 참석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체결 왼쪽 대중회 상화부회장 이태식 청송 부군수



협약체결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

종인 소개



法名 심무구(沈無垢)
本名 심선숙(沈善淑)

◇ 보광사 주지스님
◇ 동국대학교 졸업

옛 선비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말(馬)이었다. 천리 밖을 달리던 말도 죽을 때는 고향을 향하여 머리를 돌린다고 한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이야 오죽 하겠는가. 청송을 본향으로 하는 우리 청송심씨들은 지구촌 어디에 살던 엄마에 대한 향수처럼 정겹고 그리운 이름이 청송이 아니겠는가.

종보 「종인소개」 1월호에는 청송 보광산에 있는 보광사 무구(無垢) 일가 스님을 찾기로 했다. 새벽 5시에 진주를 출발해 새벽안개를 헤치고 청송에 도착하니 벌써 대종회 갑택문화이사, 언태 총무이사가 도착해있고 청송유사 상철 원섭 홍섭과 재홍관장 등 일가들이 반겨주었다. 또 청송군청에서 근무하는 남규일가도 합류해 모두가 시조묘하에 있는 보광사를 찾았다. 경내에 들어서니 총무스님이 총총걸음으로 안내하는 대로 이르니 주지 무구스님이 반겨 맞이하신다. 그런데 생애 첫 만남인데도 전혀 낯설지 않고 오랜 지기처럼 느껴짐은 아마도 한 핏줄을 타고난 일가이기 때문이리라. 마주한 그의 모습은 그의 법명이 말해주듯 때 묻지 않은, 한 떨기 청초한 목련인 듯, 고고한 학(鶴)인 듯 눈부시게 깨끗하다. 따끈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대담을 이어 나갔다.

- 스님의 원래 고향은 어디이며 무슨 파, 몇 대손이신지요?

고향은 전북 남원이며 본명은 심선숙(沈善淑)이고, 25世 공숙공 후손으로서 풍덕공파입니다.

- 보광사의 역사와 사적자료를 소개해 주시죠.

정확한 문헌은 없으나 구전되어 오는 말에 의하면 보광사는 신라 문무왕 8년(668)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 초기 세종 임금 때 소헌왕후의 시조묘소 수호사찰로 중건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계속 청송심씨 시조묘소 수호사찰로 있었는데 지금은 대한불교 조계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극락전은 근래 발견된 상량문에 의하면 조선 광해 7년(1615)에 다시 중건한 듯하며 2014년 12월 1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보물 제1,84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 스님께서 보광사 주지로 오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지요.

수양산 그늘이 강동팔십리란 말이 있듯이 오뉴월 피약별이 혹독히 내려 쬐어도, 뿌리 깊고 잎이 무성한 나무 밑에 있으면 더위를 모르지요. 비록 저 자신 출가한 승려지만 저의 몸속에는 청송심씨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심문의 근원이며 뿌리이신 시조묘하에 오니 따뜻한 엄마의 품속에 안긴 듯, 큰 후원자를 얻은 듯 가슴 뿌듯한 포근함을 느낍니다.

- 석가탄신일 등 큰 행사 때는 시조님의 연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축원하신다면요?

(청송) 보광사 주지 심무구(沈無垢) 스님

저는 우리 청송심씨의 뿌리가 여기라고 생각하며 보광산의 산신령님은 우리 시조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조님의 등(燈)은 맨 먼저 제일 크게 만들어 촛불을 밝히며 시조님의 극락왕생과 우리 일가들의 번창 번영과 안녕을 축원하곤 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더러 “스님이 심씨라고 심씨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라는 질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은 어디 치우침이 없이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묘역입구에 문중목(門中木)이라 할 수 있는 500여년 된 큰 소나무가 있는데 스님이 늘 잡목을 제거하고 보살핀다고 들었는데?

청송(푸른 소나무)은 우리 심문의 상징인데 근래 심은 벚꽃나무가 크니, 벚꽃이 피는 계절엔 화려한 벚꽃에 가려 소나무가 소외 된 것 같아 정리를 하고 주변을 청결히 하고 있습니다.

- 불교계에서, 조계종단에서 스님의 활동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리산 대원사로 출가하여 30여 년 동안 출가 수행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후 동국대학교 대학병원에 지도법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이 병고로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갖고 행복한 일상으로 재기 할 수 있도록 쾌유기도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 교직원들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기부금을 후원받아 어려운 환자들의 진료비에 도움을 주며 국내 및 해외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불교계의 중진 주지스님으로서 우리 종친 일가들에게 당부의 말씀은?

예. 모든 나무는 뿌리가 있고 샘물은 근원이 있지요.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우뚝하지요. 전국의 우리 청송심씨는 어디에 살던지 뿌리는 청송입니다. 제가 보광사에 와서 보니 많은 일가들께서 주말과 휴가 때 시조 묘를 참배하고 관향을 둘러보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다녀오라고 했다면서 젊은 부부들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와서 다녀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훈훈합니다. 누구나 뿌리를 찾아 이곳을 다녀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근원이 여기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청송에 있는 심씨 유적지를 탐방해 산교육을 시키며 정신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송심씨의 위대한 역사, 인물, 유적을 영상물(CD)로 제작해 보급하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합니다.

- 우리 청송심씨 종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종보는 잘 만들기는 하나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한자나 어려운 문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면이 허락한다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서 편집해 주시고, 또 연세 높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글자가 너무 작은 것 같아, 형편이 되면 시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마지막으로 대종회에 건의 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예 한 때는 청송심씨 문중과 보광사 간에 불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보광사가 지금은 조계

종 산하에 있다고 해도, 원래는 청송심씨 시조묘소 수호사찰이었고 지금도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님이기에 앞서 시조님의 피를 이은 청송심씨 가문에서 태어났고 저의 원뿌리는 역시 이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조묘소를 수호하는 것처럼 우리 청송심문 모든 일가들도 보광사는 우리의 절이고 우리 시조님의 수호사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종사(宗事)를 책임진 문중의 지도자들은 사심 사욕을 버리고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인생은 길어야 백년이고 이름은 천추에 남습니다. 우리 심문은 삼한갑족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모두 조상님들의 명예가 기리 이어지고 문중의 발전에 누(累)가 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광사 경내에 있는 만세루가 국가 보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뜻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문중을 빛낸 위대하신 분이여 조선시대 최고의 왕비인 소헌왕후를 기리는 다례제를 보광사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청송은 소헌왕후의 관향이며 도호부로 승격되는 등 곳곳에서 은덕을 입었으며 보광사 극락전과 만세루는 세종대왕께서 청송심씨 문중을 위해서 하사를 하셨으므로 청송심씨문중, 청송군, 보광사는 다 소헌왕후의 은덕을 입었으니 보은의 마음이 퇴색되지 않도록 기념하는 행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종인탐방을 마치면서

무구 일가 스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그는 출가한 스님이라기보다 우리 청송심문의 딸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느낄 수 있었다.

시조묘소를 수호하고 묘역을 청결히 가꾸는 일, 심문의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뿌리의 식과 문화유적 보존과 승격 등 다양한 노력과 시조묘소 진입도로 확장 공사에 대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진실을 되새기게 되었다. 늘 푸른 소나무마래 시조님의 슬하에서 스님과 함께한 한 시간여는 마치 신선과 마주앉아 대화하듯 신선한 감동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잘 가시라”고 인사하는 스님의 모습은 백옥 같은, 한 마리의 고고한 학(鶴)인 듯 눈이 부셨다. 아울러 임금이 선왕의 묘소에 능참봉을 배치해 수호토록 했듯이 무구스님이 보광사에 있는 한, 능참봉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인즉 마음 든든한 심정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돌아왔다. 무구 일가스님의 송조돈목(崇祖敦睦)정신과 일가사랑에 한없는 존경과 찬사를 보내며 더욱 발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월 15일

대담/글 : 東燮(진주) 편집위원

同席 : 갑택 문화이사, 언태 총무이사 (청송)상철, 원섭, 홍섭 유사, (청송)재홍 관장, 청송군청 남규 계장

차기 종인 소개 예정

■ 2016년 3월(종보118호) 예정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탐방자 : 상렬 편집위원, 갑택 문화이사
언태 총무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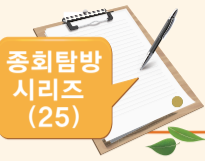
무구스님과의 인터뷰



보광사 앞에서



만세루 앞에서



진사공종회 종회탐방



심중근

대종회 이사
진사공종회장
대전, 세종, 충남지구종회 이사

종회구성

회 장 : 중근 이 사 : 8명 총 무 : 한식
회 원 : 언승, 효근, 행근, 총식 외 30명

◎ 進士公(諱:友俊)종회 설립 목적

안효공(安孝公) 휘온(諱:濫)의 자 영중추공 휘준(諱:濬)의 직계 손인 진사공(諱:友俊) 종회의 설립 동기와 목적

우리가 뿌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선조님들의 발자취를 찾아 알 수 있으며, 그 음덕으로 오늘의 내가 청송심문의 후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기르고, 누대에 걸쳐 이어가게 하고, 70~80여 호(安孝公 後孫)가 되던 일가들이 생활터전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 지금은 30~40여 호의 후손들만이 남아 선산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남은 우리가 선조님의 유덕과 유훈을 기리며 종중재산을 지켜 제향을 올리고, 화목과 상부상조로 후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진사공종회 연혁

13세조 부정공(副正公) 휘 광림(諱:光濂) 자(字) 성희(聖希)께서 丙子(1616) 후 아산으로 낙향하시어 3남 4녀를 두셨으며, 학문도 숙성(夙成)하여 음부정(陰副正)에 오르시고, 행위 또한 반듯하여 일향지장(一鄕之長)으로 추앙을 받았다. 또한, 송암공(諱:龍鎭)(회장 중근 조부)께서 지으신 한시를 모아 만소록(晩笑錄)을 편찬하여 종친 여러분께 배포하여 소장하고 있으며, 1928년 조선총독부에서 특별연고 산림양여원을 일가분들 9명의 연명으로 제출한 근거로 보아 그 이전부터 종회가 활성화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종회의 자랑

안효공 제향을 모셨던 종가 덕이 현존하고 있는 이곳 아산 음봉 산동리(용혈리)에서 20세 철경(휘:喆慶)과, 22세 택진(諱:宅鎭)에 이르기까지 50여 년을 모셨었고, 또한 諱:喆慶의 배위 남양흥씨 산소가 용혈리 뒷동산에 모셔져 있었다. 22세손 순택(諱:舜澤)은 조선후기 1884년 영의정을 지내신 분으로 운양에 있는 행궁을 둘러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산 음봉 산동에 있는 안효공 사당에 참배하기 위해 동네입구로 들어서자 영의정 행차가 들어서는 것을

본 종손 21세 재숙(諱:在淑)께서 하인에게 사당 열쇠를 맡기고 피신을 했다고 한다. 이유인즉 가세가 황폐해 제향 모시기도 어려운데 대접할 것도 변변치 않고, 초라한 가옥(사당)과 궁핍한 살림살이를 보여주지 않아 피한 것이었다.

영의정께서 사당에 참배하고 돌아가던 중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효공 종손을 너무 흠대던 것이 아니냐는 말을 전해 듣고, 한양에 돌아와서 느낀 바가 있어 종손인 재숙(諱:在淑)씨께 靑陽郡守를 제수하셨고, 그 후 高靈郡守를 역임 하셨던 22세 휘:택진(諱:宅鎭)씨께서 식솔들을 거느리고 保寧市 靑蘿面으로 이주하셨다고 한다.

동네 입구에 속중 19년(癸酉)에 건립된 12세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 휘:해(諱:諧)의 처(妻) 동래정씨지여(東萊鄭氏之間)가 보존되고 있다. 이 정문 내용을 보면 때는 선조30년 정유재란 시 정씨 할머니께서 영광 칠산 앞 바다에서 피난 중 돌연 왜적의 배 떼를 만나 사면을 포위당하여 금방 화를 당할듯하여 정씨 할머니께서 같은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욕을 당하고 사는 것보다는 절개를 지켜 죽느니만 같지 못하다' 하고 데리고 가던 북이 할머니를 불러 품안에서 젖먹이 세 살 된 아기(13세 諱:光濂)를 내어주며 '우리집 혈맥은 오직 이야기 뿐이니 그대는 틀림없이 정성껏 길러줄 것을 믿는 동시에 천지신명이 보호하여 주시기만 축원하노라' 하며 태연히 배에서 몸을 던져 바닷물에 떨어지는지라 같은 배에 탔던 12부인이 감동하여 따라서 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켰다는 사실이 삼강행록 및 속중실록에 등재되어 속중께서 이를 보시고 정문을 하사하셨다 한다.

또한 진사공(諱:友俊) 종회는 소통과 단결이 잘되어 종회 행사는 물론 대종회 주관 제향 및 안효공(諱:濫) 제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산동(용혈리) 입구에 부정공 신도비와 육군 중장 언봉장군의 추모비를 세워 매년 제향과 추모제를 올리며 정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진사공(諱:友俊) 후손인 언봉장군은 익산 함열에 계신 2세조 휘연(諱:淵) 위토 10여 두라이 농지개혁으로 소작인 소유로 이전 된 것을 임피종회 죽계공(竹溪公)과 휘 규(諱:圭)의 후손인 향유사 사일(士日)이 당시 제2훈련소장인 언봉(彥奉) 장군에게 이 사실을 전제와 장군께서 은행에서 금16만5천원을 융자(당시 집 한채 값이 2만원 정도) 휘하에 있던 육군소위 광택(廣澤)일가를 시켜 소작인에게 토지대(土地代)를 지불하고 위토를 찾아 환원해 제향을 이어가게 하셨으며, 재실(齋室) 또한 퇴락하여 2만환을 들여 수리까지 해 그 齋室(영모재)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언봉 장군께서는 창군(創軍)의 주역으로 대한민국 國軍의 기틀을 세우신

분이다. 언봉 장군의 國軍 동기로는 군번 1번인 이형근 육군대장, 정일권 전 국무총리, 강영훈 전 국무총리, 백선엽 대장 등이 있고, 일찍 서거(33세)하지 않으셨더라면 더 큰일을 하셨을 텐데 심문으로선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봉 장군은 23세로 안효공과 상자(相=彥)항렬이시며 고향 아산시 음봉면 산동(용혈리) 마을 입구에 그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언봉 장군은 진사공종회 중근(仲根) 회장의 숙부(叔父)가 되시기도 하다.

◎ 대종회 및 안효공종회에 대한 바람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용혈리)에 있는 초유의 안효공(諱:濫) 사당으로 1865년(동지4년)에 지어져 종손께서 거주하셨던 가옥으로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왔고, 현재는 진사공(諱:友俊)종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너무나도 초라하여 역사적인 초유의 사당 면모를 갖추기 위해 安孝公 종회와 대종회에서 지극한 관심을 갖으시고 재건축함으로써 청송심문의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운힘을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탐방후기

우리 심문의 자랑이고 합문지후공(閔氏侯公) 휘 연(諱:淵)선조님의 위토를 찾아주신 언봉 장군의 고향인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용혈리)를 방문하니, 50여 년간 안효공(諱:濫)의 제향을 모셨다는 초라한 사당(지금은 진사공 諱:友俊종회 사무실)으로 회장님(仲根)이 안내를 하니 일가 여러분들이 반가이 맞이해 주었다. 사당은 구옥 마루를 지나 방으로 들어가니 전기장판 매트위에 한 10여분이 앉아 있어 방안이 딱 차 비좁았다.

이런 협소한 곳에서 누대를 거쳐 제향을 모셨다니 모시는 종손과 종부님들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정성과 송조(崇祖)의 정신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제향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였을 것을 생각하니 머리가 숙연해졌다. 지금은 仲根 회장님이 거처하며 본가를 관리하고 계신다. 일가 분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리며 진사공(諱:友俊)종회의 무궁한 발전과 丙申年 한 해 일가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2015년 12월 18일
대담/글: 종보편집위원 규선
탐방자: 갑택 문화이사, 언태 총무이사

차기 종회 탐방예정

함안 정랑공종회(회장: 재운)

탐방자 : 수영 편집위원, 갑택 문화이사, 언태 총무이사



진사공종회 (사당) 분가



육군중장 언봉장군 추모비



9세 달원(達源)종손 해(諱:諧)처의 열녀문

4세조 청성백·정안공 재각건립 성금 안내

2016 병신(丙申)년 새해를 맞이해 일가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4세조 청성백·정안공(휘:덕부) 선조님의 재각건립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4세조 청성백·정안공 할아버님께서는 슬하에 7형제를 두시어 오늘날 심문을 크게 번창(繁昌)시키셨을 뿐 아니라, 3대가 연이어 정승에 오르시고 소헌왕후를 손녀로 두심으로서 명실공히 청송심씨를 삼한갑족(三韓甲族)의 반열(班列)에 오르게 하신 훌륭한 조상님이십니다. 그러나 후손들로부터 추앙(推仰)받고 있는 심문의 자람이신 정안공 할아버님의 묘소에는 아직까지 재각이 마련되지 않아 눈비가 오는 날에는 제대로 제향(祭享)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심문의 후손으로서 선조님의 은혜를 망각(忘却)한 채 무관심 속에서 살아온 지난날들이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이번에 대중회에서 녀려하지 못한 재정(財

政)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서둘러 재각건립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물론 선조님의 제향봉행(祭享奉行)과 묘역관리(墓域管理)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또 한편 이번에도 재각건립을 뒤로 미룬다면 앞으로 영원히 재각건립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절실함이 컸기 때문입니다.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청성백 선조님의 재각건립을 위하여 2014년 11월에 재각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發足)하였고,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 10월에 재각건축을 위한 기초공사(基礎工事)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처럼 재각건립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작년 한 해 동안 성금실적(誠金實績)은 1억 여 원으로 총 공사비용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여 올해 완공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는 면도 있으나 전국 지파중회와 종원들께서 다함께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잘 극복하여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복하여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심문가족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 심문 후손들이 다함께 십시일반(十匙一飯) 힘을 모아 청성백 할아버님의 재각을 건립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면 우리 후손들이 선대의 돈목(敦睦)과 단합(團合)된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며 명문가의 후예로서 더 큰 자긍심(自矜心)을 갖게 될 것입니다. 2016년 1월 종보(宗報)에 동봉한 청성백 할아버님의 재각건립 성금 지로(금액은 자율적으로 표시) 또는 재각건립 입금계좌(농협 301-0159-0778-41. 예금주 청송심씨대중회)를 통하여 우리의 염원이며 숙원사업(宿願事業)인 선조님의 재각이 올해 안으로 창건(創建)될 수 있도록 일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協助)를 당부(當付)드립니다.

2016년 1월 4세조 청성백·정안공 재각건립위원회 고문 심우영·회장 심갑보



각종 찬조현황 2015. 11. 26 ~ 2016. 1. 25

| | | |
|------------|---------|--|
| 부회장회비(15년) | 300,000 | 재면 부회장, 의철 부회장, 친구 부회장 상근 부회장 |
| 감사회비(15년) | 200,000 | 현보 감사, 주섭 감사 |
| 이사회비(14년) | 50,000 | (서울)원식, (서울)상묵 |
| 이사회비(15년) | 50,000 | (서울)원식, (서울)상묵, (경기)재호, (서울)우하, (대구)성택, (연천)홍섭, (청송)홍섭, (광주)진식, (전남)기백, (경기)언태, (경기)종홍, (인천)경섭, (서울)완규, (경기)광보, (서울)준보, (강원)상소, (충남)영중, (재덕)부산, (전북)정수, (충북)재덕, (충북)재우, (경기)윤섭, (충남)홍택, (경기)덕섭, (인천)강수, (서울)형구, (마산)점보, (마산)규실, (김포)상은, (김포)상렬, (서울)상조, (경북)재욱, (서울)의표, (경남)재화, (광주)준섭, (서울)용진, (서울)상서, (경북)재욱, (서울)의표, (강남)광섭, (과천)양섭, (경기)상우, (경기)영수, (전남)기관, (충남)윤택, (전북)종근, (전북)상도, (전남)정섭, (서울)재신, (충남)중섭, (경기)상훈, (서울)훈보, (경북)상동, (충남)갑택, (전북)수일, (인천)규성, (경남)재관, (대구)호홍, (인천)상진, (전남)태수, (강원)우홍, (경기)형찬, (강원)동출, (서울)재금, (서울)재홍, (충북)홍섭, (충북)재혁, (부산)의경, (경기)갑택, (부산)재영, (대구)정섭, (경기)규일, (충남)재영, (인천)상규, (광주)재익 |
| 이사회비(16년) | 50,000 | (강원)재구, (부산)재영, (대구)정섭, (경기)형찬, (김포)양섭, (경기)규일, (충남)재영, (인천)상규, (광주)재익 |

임원회비

종보찬조

| | |
|-----------|------------------------|
| 1,500,000 | 이세기 |
| 1,000,000 | 부사공중회(회장:영섭) |
| 500,000 | 안동오평중친회(회장:용락) |
| 300,000 | 인천중회(회장:응무) |
| | 구미중친회(회장:재홍) |
| 200,000 | 판관공중회(회장:상렬) |
| | 월촌중회(회장:상영) |
| 120,000 | (부천)범택 |
| 100,000 | 논산익모중중(회장:동섭) |
| 60,000 | (전남)강채 |
| 50,000 | (양평)재열, (경북)무수, (대구)호홍 |
| 20,000 | (강원)승권 |

지로 종보찬조 1만원

재윤 재규 상영 대식 재동 상권 명섭 동혁 우하 영구 승권 상후 수익 경홍 정규 상태 규만 성기 규성 만덕 명택 화섭 민섭 호홍 재학 정보 대섭 원보 상희 형식 상호 상만 재환 재영 재식 형돈 재현 재성 민성 재봉 영배 문환

재각건립현성금

| | |
|-----------|---------------------|
| 3,000,000 | 신천공파추천대선중회(회장:상소) |
| 1,000,000 | (전남)기백 |
| | (전북)상현 |
| | 장성청송심씨돈목회일동(회장:정섭) |
| | 풍덕공파중회(회장:재영) |
| 700,000 | 광주정랑공중회(회장:응구) |
| 500,000 | 이천중회(회장:재봉) |
| 300,000 | 전북중회(회장:응진), 이천(재봉) |
| 200,000 | 언촌(경기) |
| 100,000 | 중방(경기) |
| 50,000 | 상봉 |

개인 천만원, 중회 5천만원 이상은 재각완성시까지 사진게재

중보·장학찬조 50만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게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효공파 대중회 이사 (상보) | 안효공파 대중회 이사 (광섭) | 안효공파 대중회 고문 (재영) | 안효공파 대중회 회장 (갑보 개인) | 안효공파 공중중회 회장 (홍섭) | 수운관공파 마산중회 (회장 규일) | 인천중회 (회장 응무) | 부사공중회 (회장 영섭) | 안동오평중친회 (회장 용락) | 악은공파 삼우정랑주대표이사 (극택) | 안효공파26대 보석 (경기 안양) |
| 1천만원 2015년 7월 | 1천만원 2015년 2월 | 1천만원 2015년 2월 | 1천만원 2015년 1월 | 5천만원 2014년 11월 | 장학찬조 50만원 2016년 1월 | 중보·장학찬조 60만원 2016년 1월 | 중보·장학찬조 200만원 2016년 1월 | 중보·장학찬조 50만원 2015년 12월 | 장학찬조 1천만원 2015년 11월 | 장학찬조 50만원 2015년 11월 |

장학찬조

| | |
|-----------|------------------|
| 1,000,000 | 부사공중회(회장:영섭) |
| 500,000 | 수운관공파마산중회(회장:규실) |
| 300,000 | 인천중회(회장:응무) |
| 200,000 | 월촌중회(회장:상영) |



의락
대중회 명예회장

의락(宜洛) 대중회 명예 회장님께서 회장 재임 시 종회발전에 열과 성의로 헌신 하시고, 특히 후손들의 꿈인 장학사업을 추진 정착 하셨습니다. 병환 중이신데도 오직 재각건립의 완공을 위해 금일봉을 보내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발령



심갑택

대중회 인사발령

면 : 문화이사대행
명 : 문화이사
2016년 1월 1일부

인천중회 임원 개선

인천중회는 지난 12월 20일 송년회를 갖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다.

- 회 장 - 응무 감 사 - 이섭, 경수
- 총 무 - 승섭, 영주 재 무 - 대환, 재원
- ◇ 인천청인회
- 자 문 - 응무 회 장 - 강수
- 감 사 - 경수 총 무 - 대환



청송심씨 중친회 송년의 밤
2015년 12월 19일 수원공원가든



춘천중회는 지난 12월 말경 춘천지역 종인 단합모임을 갖고, 새해엔 더욱 건강하고 화합하는 중회가 되자고 다짐했다.



일본중회장이신 광섭(沈廣燮) 일가께서 2015년 11월 4일 병환로 별세하셨습니다. 광섭 회장께서는 타국에 계셨어도 조국의 뿌리를 잊지 않고 대중회를 후원하시고, 관향 청송에 악은공 재각(경의재) 건립에도 거액의 헌성금을 후원하신 일가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 대중회집행부 일동 -

공숙공 종손 별세



심인보(沈仁輔) 공숙공종손이 숙환으로 2016년 1월 22일 별세했다. 장례는 공숙공중장으로 공숙공종중 응섭 회장을 비롯해 많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보추모원에 모셔졌다.

2015년 정기 종보편집위원회 회의 개최

일 시 : 2015년 12월 5일 (금) 오전 11시
장 소 : 대중회 회의실
참석자 : 상화 상임부회장, 편집위원-동섭, 수영, 상렬, 재석, 석문, 민섭, 성기, 길섭, 광섭

결의사항

1) 현재 청송심씨중보 타이틀 일부 한자를 모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변경하자는 데 참석위원 모두가 동의 했으며, 변경한 한자 타이틀은 2016년 1월호부터 사용하기로 했다.

(구) 종보 타이틀 한자



(신) 종보 타이틀 한자



2) 편집위원의 역할 강화

현재까지는 종인탐방이나 중회탐방 시 문화이사가 주도적으로 취재를 해 종보에 게재

해 왔으나, 유능한 종보편집위원의 역할을 폭 넓게 활용하고자 1월 종보부터는 종인 및 중회탐방 시 대중회 집행부와 함께 동행해, 대담(취재)기사를 작성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3) 종보 활자 확대 및 청소년을 위한 코너 신설

현재 종보의 활자가 작아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께서 보시기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청소년도 종보를 관심 있게 읽을 수 있도록 종보 편집을 다양화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12월 연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종보편집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1월 1일
- 갑택 문화이사 -



편집위원회 개최시 상화부회장 인사장면

심수관 도자기 전시관 견학

심수관(家)은 1598년 정유재란 당시 전북 남원에서 거주하던 심당길(1대)이 일본으로 끌려간 이래 416년 동안 청송심씨(靑松沈氏) 성(姓)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조선도자기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혼과 예술적 자긍심을 지켜오고 있다.



심수관도자기전시장 좌로부터
언태, 흥섭, 상화부회장, 재서, 재홍, 남규, 능광

대구 한국홍삼제조공사 대표 심호웅 대중회이사는 인삼 관련 지적재산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산업포장 수훈 등 자랑스런청송인 상을 수상하였다.



심호웅 이사 수상장면

사인공중회 임원개선

총회일시: 2015년 12월 9일 11시
고 문 : 주택, 상직, 흥섭, 윤섭, 창섭, 강섭, 갑보
회 장 : 양섭
부 회 장 : 윤택, 상후, 학섭, 형찬
감 사 : 인보, 원보
총무이사: 관섭
재무이사: 재만

금지사항

- 2016년 7월, 11월(연 2회) 종보찬조 지로 용지 배송 예정
※ 지로 찬조는 의무사항이 아님을 참고하시고, 찬조 의향이 있으신 종인께서만 참여하시면됩니다.
- 각종 찬조 시 종보에 사진게재
 - 재각 헌성금시 중회 5천만원 이상, 개인 1천만원 이상 시는 종보에 중회명과 중회장 사진을, 개인은 개인 사진을 재각 완공식 까지 게재합니다. 또한 재각 완공식 재각설립비에 헌성자 명단을 함께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이하 헌성자 명단은 종보에만 게재하여 대중회 역사기록에 길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재각건립위원회-
 - 종보 및 장학찬조를 50만원 이상시는 종보에 2회 사진게재 합니다. (중회명과 중회장/50만원 이상 개인사진)
- 2016년 장학금에 선발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2월 23일(화요일)에 지급 예정입니다.
- 대중회 보유 족보(대동세보)가 소량 남아있습니다. 대폭 할인해 6만원에 보급하며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중회탐방을 희망하시는 중회(파중회, 지역중회)는 문화이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회 명의를 도용해서 각종 책자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전국 종인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대중회에서는 전화 등으로 책자판매를 요청하는 일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책자를 받을 경우 발송지 주소로 착불 반송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족보는 2016년 2월말까지 등재완료 할 예정입니다.

송금안내

청성백 정안공 재각건립 헌성금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 301-0159-0778-41

송금안내

임원회비·종보찬조·장학찬조·족보대금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 301-0107-5873-71